



## 대표기도

가족대표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득한 2026년의 첫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해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과 학업의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곳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시편 128장 1-2절

다 같이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하다

## 설교

### 진정한 복이 있는 길

인도자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인사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2026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28편의 말씀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짜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2026년 한해 진정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족 되길 바랍니다.

1.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경외’는 어떤 대상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 대상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모든 결정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 건강, 사회적 성취와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이 길은 때로 어렵게 느껴지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참된 복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한대로 먹고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수고한대로 먹고,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낙담하고 흔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어도 얼마나 얻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한 것의 합당한 결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형통한 길을 걸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십니다.

우리 가족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수고한 모든 것의 합당한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붙잡아주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형통한 2026년 되길 소원합니다.

## 기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복된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수고한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을 걷는 복된 2026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함 께

보통으로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홀 어찌 의심하리요  
 이 러운 사 일 당한 썩은 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 음은 성령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사 형통하라  
 영영 부를나의 찬송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사 형통하라  
 영영 부를나의 찬송예수 인도하시네 아멘

주기도문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설날 가정예배

- 예배를 준비하면서
- 가족 중 한 분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 명절 예배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예배 시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는 일을 삼가 합니다.
-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한 마디씩 나눕니다.

묵상기도

다 같이

신앙고백

다 같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다 같이

보통으로

1.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2.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